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 3절 요단을 건너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 5절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 7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 9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 10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 11절 모세가 그 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 13절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고
-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 22절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 24절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할 것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은 요단강을 건너 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날에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왔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1절)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건너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2-3절)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을 세우는 장소는 약속의 땅의 중앙에 있는「에발산」입니다. (4절)
인간의 손으로 가공을 하지 않도록 쇠 연장을 대지 말고,
인공적인 소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석으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5,6,8절)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가르침인 율법을,
약속의 땅 한 가운데에 있는「에발산」의 「큰 돌」에 새기는 것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항상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한 사람이 한 권의 성경을 갖고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살 곳의 한 가운데에 항구적으로 돌에 새겨서 기념비로 만듦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따른다는 것을,
자신들도, 자손들도 상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돌에 석회를 바르는 것은, 율법이 명료하게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돌을 오래토록 보존하기 위해서 입니다.
석회는 콘크리트 소재로, 역사가 길어,
고대 로마인들은 화산재와 석회와 암석을 잘게 부순 돌을 혼합한 것이,
물속에서 굳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리나 판테온등 큰 건조물을 만드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돌 자체로도 오래가는데, 그 위에 석회를 바름으로써
훼손되는 것을 막고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위에 새겨진 율법이 내구성 있는 것으로 항상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지키라고 하는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서는, 잘 보이는 장소인 산중턱이나 절벽의 암벽에, 율법이나 역사, 공적들을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여기서도 잘 보이게 「큰 돌」을 골라서 세워,
눈에 잘 띄도록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8절의 「정확히 기록할지니라」는
문자 그대로는 「잘 파서 기록하다」의 강한 표현으로,
백성들 마음에 새기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3절 후반)

가나안에 들어가, 약속해 주셨던 것을 갖게 됐다고 해서,
그 다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율법을 지키며 이곳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들의 부모들과 같이 광야에서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율법입니다.

인생과 하루 하루의 삶의 한 가운데에 성경을 놓고,
그것을 매일 충실하게 읽고 따르는 것 없이,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생각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매우 평범한 일입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크리스찬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반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6절 후반절에서는 율법 기념비를 만든 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6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7절)

「번제」는 모두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화목제」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예배자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은혜를 생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행복함을 깊이 음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어서, 모세와 레위인인 제사장들이 전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라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백성이 되었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9-10절)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예배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장면에서,
「잠잠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잠잠하여 경청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너희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바뀐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이 되었기에 주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힘으로 노력해서 「좋은 일」을 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결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의 직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보답함으로 기뻐하며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 여섯 부족씩 세워,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도록 명령합
니다.

그리심산에는,
축복받는 자들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이 서고 축복을 받습니다.

한편,
에발산에는,
저주받는 자들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가 서게 되고 저주를 선언받게 됩니다.

각 부족을 보면,
축복과 저주에 각각 상응하는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뜻이라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의식이었다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14절이후 더 나아가 28장에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주받은 산과 축복받은 산에 사람들을 세워서 가르침으로써,
보다 리얼하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교육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장훈련, 시청각교재인 것입니다.

저주받은 산에 선 자들은 「저주」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한편 축복받은 산에 선 자들도, 자신은 축복산쪽에 서 있다라고 하는 안심감과 동시에, 건너편에 보이는 저주산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종말때에,
재림의 예수님께서,
축복받은 양과 저주받은 염소를 나누셔서,
천국행과 지옥행을 각각 선언하시는 장면을 상상하게 합니다. (마태 25:31-46)

이렇게 해서, 서로 마주보는 양쪽의 산에 선 이스라엘 전원을 향해서 큰소리로 선언하라고 레위사람에게 명령합니다.

15절 이하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15절f©

여기에 열 두항목이 등장합니다.
어떤 절도 다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라는 강렬한 선언입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아멘」하고 일제히 응답합니다.
히브리어로 「진실합니다」라는 동의한다는 표명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는 것이기에,
각오하고 「아멘」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첫번째는 십계명중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을 깨는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제5계명의 아비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죄에 관한 것입니다.
「모욕하다」는 「가볍게 보다, 경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번째부터 다섯번째는,
지경을 옮기는 죄, 눈이 보이지 않는 자나 외국인 등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죄를 금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부터 아홉번째까지는, 제7계명인 간음죄에 관한 죄입니다.
대가족제도의 많은 세대 속에서 근친상간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성적 질서를 지키며 생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열번째는 제6계명인 「이웃을 암살하는」 살인죄에 대해서 입니다.

열 한번째도 똑같이 제6계명의 「살인하지 말라」에 관해서 입니다만,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죄에 대해서 입니다.
원망이나 미움에 사로잡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 살인도 상관없다고 하는 종류의 그야말로 악랄한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최대한의 이득획득을 위해서 기민정책으로 추진해 왔던
원전발전소와 전쟁은, 현대에 있어서 열 한번째의 「저주받을」범죄 행위입니다.

마지막의 열 두번째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26절)

「이 율법」은 신명기에 기록되는「율법」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1개의 계명만으로는 다 말할 수 없기에,
마지막에 「이 율법」이라고 전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입하게 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창 9:25)라고 하는 땅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였고,
주위를 둘러싼 주변국가들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마음을 다해서,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12개의 율법 중 처음과 열번째의 율법에는 「은밀히」라는 단어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자에 대한 억압등, 그 외의 저주에 관한 선언에서도 비슷한 뉴앙스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 눈에 드러난 죄는 사람 앞에 드러내서 사람 앞에서 벌을 주면 되지만,
사람 눈을 속여서 지은 「은밀한」죄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으시고 직접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해 가십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저주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형제자매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함으로,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피로 죄를 사해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